

건축설계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전문화 방안

Plans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 Specialization of Architectural Designs

우리 협회는 지난 11월 26일 오후 2시 협회 대강당에서「건축설계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전문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WTO출범과 건축설계시장개방 등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처해 있는 우리 건축계의 국제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건축설계사무소마다 다양한 전문분야를 확보하고 ▶건축설계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계업체와 구조, 설비 등 관련 전문분야가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건축의 상품성과 문화예술성이 함께 고려된 건설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서울시립대 최찬환교수는 「건축설계의 경쟁력 확보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건설업계의 국내진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설계사무소가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문영역을 크게 주거, 상업시설, 공공시설, 교육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교통 및 운수시설 등으로 구분하였다. 최교수는 또 외국업체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을 막고 우리가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외건설업체와 협력해 정보와 기술, 경험 등을 지원받아야 하고 R&D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축설계의 전문화」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강원대 박경립 교수는 국내 건설관련문제점 개선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입법추진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축설계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대한 보완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박교수는 또한 건축설계분야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함께「건축문화」라는 사회문화적 측면의 중요성이 인식돼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박교수는 이밖에도 사회발전에 따른 새로운 전문영역의 개발로 실내설계와 도시설계를 예로 들었으며 정보화에 맞게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Network체계를 구축하고 그 핵심은 건축사협회에 정보Network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주제발표 후에는 약 3시간여에 걸쳐 이문보(동국대 교수), 손세관(중앙대 교수), 이병담(현대산업개발 부사장), 김인호(국방부 건설기술과장), 유경철(삼육건축사사무소 대표), 이관영(본 협회 이사)씨 등 건설·건축관계자들이 참가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의 인식에 앞서 건축계 내부적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의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무한경쟁속에서 우리 건축설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본지에서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토론회 광경

건축설계의 국제 경쟁력 확보방안

Plans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of Architectural Designs

최찬환 /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

1. 서론

밖으로는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의 거센 물결속에 안으로는 각 분야에서 경쟁력 10%높이기를 국가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치열한 생존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거품건어내기, Re-structuring, down-sizing, Re-engineering 등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자기구제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건축설계분야도 이런 개혁과 변화의 예외지대(例外地帶)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보화, 다원화, 전문화 사회가 이와 같은 개혁과 변화를 더욱 촉진시키게 된다. 건축설계·감리 그리고 건설시공 분야의 개방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97년부터 완전개방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의 대형설계회사가 국내설계를 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거나 외국의 5개 대형건설회사(CM)가 국내에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긴장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이 앞설 뿐 도대체 어떻게 난관을 극복해야 할 지 뚜렷한 방안이나 대책도 별로 없다. 지금까지는 건축설계업무가 해외 진출이 거의 없는 대신 외국기업의 국내진출도 금지함으로써 국내시장이 보호되었기 때문에 거의 독점적 상태에서 국내 건축사 사무소가 쉽게 업무를 수주할 수 있었다. 또한 오랫동안 GNP 증가율이나 건설물량의 증가율이 건축사협회 회원의 증가율보다 높았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따른 기복현상은 있었지만 업무량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법적보호에 따라 안주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건축계가 설계와 공사감리를 업역으로 하는 설계사무소와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회사로 업역을 분장하여 업무의 전문화와 함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도록 오랫동안 시행되어왔다. 국내 건설시장은 설계와 시공을 막론하고 거의 보호되어 왔다.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건설시공분야는 대외경쟁력을 가진 성장산업으로 국가 경제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해온 대외지향적(對外指向的)이고 진취적(進取的)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국내 설계용역 부문은 창의적 디자인, 기술수준, 자본 등에서 외국업체에 비해 열악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소규모 영세 설계사무소가 난립하여 건설 시공부분과는 반대로 외국에 진출하기는 커녕 외국의 설계사무소가 국내 대형 건축물의 설계를 맡게 되어 국내 설계용역 시장을 잠식당하게 되는 수세에 몰려 있는 형편이다. 대외적으로 국제화 개방화의 거센 물결과 싸워야 하고 국내적으로는 고유업무 이외에 행정위탁 업무의 확대, 감독 및 처벌의 강화, 지나친 행정규제

와 함께 까다롭고 복잡한 인, 허가 업무의 대행, 건축사의 자격 강화, 기술 및 기능인력의 부족, 잦은 정책과 제도의 변경, 통제된 저가의 보수요율, 과당한 수주경쟁과 덤핑, 이로 인한 부실설계와 설계의 질적수준저하, 국민들의 설계에 대한 인식이 낮은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내우외환(內憂外患)의 매우 어려운 현실 여건에 직면해 있는 실정으로 이를 획기적으로 변혁시켜 새로운 환경여건의 조성, 체질개선, 생산성향상 등 지금까지의 관행과 비효율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 건축사의 업무

건축사의 업무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규정하는 건축설계와 공사감리를 주종으로 하고 이에 부수되거나 보조하는 현장조사 검사대행 업무, 인·허가, 중간검사, 준공처리 대행업무 그리고 처리기준이 없는 민원, 조사, 진단, 평가 등의 여러 업무가 있다. 건축사로 하여금 고유업무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행정고유업무인 현장조사 검사대행업무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그리고 사무소 경영에 따르는 수주활동 등에 지나친 시간이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 또한 전문업역인 구조, 설비, 토목, 조경, 방재, 인테리어 등 전문업체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들 업체와의 상호 협력체제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건축설계업무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문화는 건축설계분야 뿐만 아니라 여러관련 분야에 대한 고품질의 유지와 개발 및 발전에 필수적인 요건이고 이것이 경쟁력확보에 제 1의 요건이다.

3. 건축계의 현실

93년도 1인당 업무를 보면 연간 허가건수는 34건, 허가면적은 29.563㎡로서 1건의 평균규모는 253평 정도이고 한달에 약 2.8건을 9명의 설계보조원의 업무보조를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건축설계용역의 시장 규모는 연간 1조 2천억에서 1조 5천억 정도로 추정(93년말)되고 있으며 1개 설계사무소의 연간 평균 수주액이 2억 5천만원 ~ 4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연도별 건축경기 변동에 따라 기복이 심하여 설계물량의 차이가 있을뿐 아니라 실제과당경쟁으로 법적요수요율보다 낮은 설계비로 덤핑수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건축설계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이를 96년 11월 현재 등록된 4,620여개의 건축사사무소에 6,259여명의 등록건축사와 50,000여명의 설계보조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이는 2,800여개 건설업체(시공회사) 중 상위그룹에 속하는 1개 건설회사의 연간 수주 및 매출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로서 95년도 S 건설회사의 수주 및 매출목표액이 각각 5조원으로 건설경기가 극히 저조한 불경기임에도 9월말 3조 2,000억원의 실적을 올렸음을 비교할 때 건축설계업이 중소기업 종의 특수전문화 업종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회사의 독립·대규모 건설회사의 종합건설업으로 설계와 시공의 통합추진, 외국회사에 대한 선호경향으로 대형건축물의 기본설계를 외국설계사무소에 의뢰하는가 하면 국내업체의 불신으로 공사감리를 외국업체에게 높은 감리비를 지불하면서까지 공공연히 맡기는 등 외국건축관련회사의 국내진출 확대와 국내시장의 잠식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한편, 국내설계사무소는 국제경쟁력을 거의 갖추지 못하여 해외진출은 엄두도 못낼 뿐 아니라 국내 설계시장을 고수하기도 역부족이다. 따라서 해외진출은 설계사무소가 해외건설업체와 동반적 협력자로서 정보, 기술, 경험 등을 긴밀히 협조,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필요가 있으며, 국내시장은 개혁적인 조치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이외에 다른 대책이나 묘안이 없다고 생각한다. 건설분야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정책중 Turn-key입찰을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전문화된 설계사무소와 시공회사의 공동협력에 의한 Partnership의 좋은 예이다.

4. 설계사무소의 전문성과 그 영역의 확대

사회가 고도화, 다원화, 다양화될 수록 직업의 분화 및 업무의 전문화가 촉진된다. 설계사무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건축사자격이 모든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을 국가가 법적으로 인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전문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고도로 전문화가 되고있는 기술집단(예, 전문의, 첨단기술분야, 스포츠선수, 예술 등)이 많으며 이는 경쟁력 확보에 제일 첫번째의 요건이다. 건축사가 그렇게 많은 종류의 특성있는 건축물을 모두 잘 설계할 수 없으며, 전문성없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전문의 중에서도 다시 수많은 전공분야로 나뉘며, 한 종목의 운동경기에서도 각 선수가 전문적 위치(포지션)와 역할을 맡아 팀 플레이로 최대의 협력과 조화를 가질 때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보고 느낄 수 있다. 설계업무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전문분야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주거(아파트, 기숙사 등), 상업시설(백화점, 호텔 등) 공공시설, 교육문화시설(학교, 도서관, 공연장 등) 사회복지시설(병원 등), 교통운수(공항, 역사, 터미널 등) 등 계열로 구분하고 계열안에서도 건물 종류별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 사람이 가지는 능력과 시간의 한계 때문에 1인 만능의 동시다발적 업무처리는 점점 어렵고 경쟁력이 없다. 업무의 고도한 전문성과 이들 전문화된 분야가 각기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면서 상호 유기적 조화를 이룰 때 최상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각기 다른 악기연주자가 그 역할을 다하면서 서로 화음을 맞출 때 훌륭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와 마찬가지로. 따라서 설계사무소도 그 성격에 따라 특성의 유형구분을 하고 시급히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설계사무소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생각된다.

〈유형 I〉

건축행정과 대민 서비스를 주로하는 설계사무소 인·허가를 포함한 현장조사검사, 확인 등의 다양한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가 있으며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는 물론 건축물의 개·보수·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대국민 건축서비스를 디자인, 기술 등의 전문가로서 담당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형건축물을 등한시 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건축업무가 극히 제한된 소수의 건축주에게 서비스를 하고 그렇지 않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전문가로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힘을 잃는다. 실제 소형건축물에 대한 업무, 기존건축물에 대한 개·보수를 포함한 유지관리 등의 시장은 클 뿐만 아니라 당연히 건축전문가가 담당해야 할 업무영역이다. 건설업법에서 규정한 등록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규모가 주거용건축물 200평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150평으로 지나치게 낮게 되어있어 현실성이 없고 실제로는 명의 대여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하고 비전문가가 주도하는 이 분야를 설계사무소가 CM의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M은 계약방식에 관한 문제이며 CM회사는 용역비를 받고 건축주의 역할을 대행해주는 CM for Fee의 형태와 업무를 수주하여 전문업체에게 맡기고 관리하는 개발자의 역할인 CM at Risk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소규모건축물의 개발자도 CM의 형태가 많다.

〈유형 II〉

아뜨리에 같은 성격의 소규모 전문화된 설계사무소로, 건축사 개인의 창작능력과 작품성을 중요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유형이다. 건축물의 설계가 개별 건축물별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주문에 대응하여 맞춤형의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장인정신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건축사 개인의 창의적 그리고 기술적인 능력에 의존하는 유형으로 전문화된 설계사무소이다.

〈유형 III〉

중규모이상의 기업형 설계사무소로, 대형설계과제를 System에 따라 운영하게 된다. 여러 전문 설계전담부서를 두고 자체 또는 외부의 전문설계업체와 공동, 협력, 분담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하고 외국의 대형설계사무소와 엔지니어링회사와 기술경쟁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관련분야가 점점 전문화되어 가는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업무영역이 점차 좁아지고 업무도 줄어들게 된다. 얼핏 생각하면 좁은 특정분야에서 전문화하게 되면, 업무가 줄어들 것 같으나 그 반대로 전문화가 이루어질수록 기술력, 업무효율, 생산성 등이 높아지고 과당경쟁은 줄어들며 협력체계를 이루게되면 전문분야전체로 보면 업무영역이 확대된다. 건축설계사무소의 과다경쟁, 덤핑수주, 부실설계, 국민의 인식부족, 안정적 사무소경영의 어려움, 대외경쟁력의 취약성 등 여러문제의 근원이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5. 생산성 증대와 효율 극대화 방안

1) 공동사업의 활성화

설계사무소의 특성으로 보아 개별사무소 단위의 독립적인 활동으로는 그 한계가 있을뿐 아니라 업무효율이 없다. 따라서 건축사협회 등의 조직에 의한 공동화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설계사무소에 절실한 구호이다. 설계사무소의 업무특성이나 조직상 자율, 분권 등 일치된 통합보다 다양한 개별행동이 있기 쉽다. 의견은 다양하게 제시하고 개선하되 갈 길이 결정되어 행동통일을 하여 단합된 모습으로 추진해야 한다. 근년에 건축설계업무의 육성책과 지원방안 등에서 건축사협회가 시행하기로 한 건축정보센터, 건축연구소설립·운영, R&D사업의 확충 등 일련의 대 정부 약속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으며 건설교통부도 이에 큰 추진력을 가지지 못한 것 같다. 정부와 협회가 법건축계의 힘을 빌려 추진하여도 힘든 일인데 아무도 큰 관심이 없는 듯 하니 안타까운 일이며 이것이 건축설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관건이다. 한 예로 국내 H건설회사가 연구소를 설립하였는데 410억원을 투자하고 박사 25명을 포함한 72명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여러 회원의 중심역할을 해야 할 대한건축사협회가 연구개발 투자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아까운 일이다. 정보센터는 각종 정보와 자료를 Database화 하여 여러 사무소에 지원공급할 수 있다. 이는 개별사무소 단위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나 설치·운영 경비로 인해 비경제적이다.

따라서 각 사무소가 중복투자하는 비효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면 개별사무소에서 단순 Data에 해당되는 도면 등은 공동화하여 처리하고 실제 저작권, 기술보호 등에 유효한 기획, 아이디어, 첨단신기술 등의 개발에 전력해야 한다. 설계사무소가 단순 기능인력의 부족에 애로를 겪고 있으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추정하건대 전체 설계도면의 약 80% 이상이 단순작업이기에 이는 공동화에 따른 Data-Base 구축으로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등의 끊임없는 수혈과 순환작업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디자인, 기술개발, 경영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R&D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투자는 하지 않고 수확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개별사무소 또는 건축사협회를 통한 공동화사업에 어느정도 R&D사업투자를 하였는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평균 R&D 투자비율이 매출액의 1.8% 수준임에 비해 일본은 14%에 달하고 있는 점을 참고로 할 때 경쟁력확보를 위한 선결조건과 그 준비는 R&D 투자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건축설계는 일반제조업에 비하여 그 특성상 디자인과 지속개발이 중요하여 투자비율을 높여야 한다. 제조업 평균에 해당되는 2% 가량인 연간 300억원 정도는 투자되어야 한다.

2) 협력체제의 구축

설계업무는 어느 한사람의 초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건축과정으로 볼 때 기획, 계획, 설계, 감리, 시공, 유지관리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전문분야의 참여와 상호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전문영역별로는 계획설계, 구조, 설비(기계 위생, 전기통신, 소방 등) 토목, 조경, 인테리어 등 많은 전문분야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건설시공에 있어서도 3,798개의 일반건설업체가 17,000여 전문건설업체와 상호협력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같은 전문분야와의 최상의 조화로운 결합이야말로 고효율 저비용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각 전문분야는 앞으로의 정보화 미래사회에 살아남기 위해 High-Touch(고디자인)와 High-Tech(고기술)에 매진해야 한다. 한마디로 전문화, 협업화, 공동화하여 규모경제와 고효율구조를 가져야 한다.

3) 기타

부족한 기능인력의 장기적,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개편, 기능인력의 공동양성, 인력의 full제 운영, 전문인력의 지속적 교육훈련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기관의 설치가 따라야 한다. 또한 자격있는 건축사가 설계 및 공사감리의 건축사 고유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찰방법과 수의계약 인정, 계약제도 개선, 저작권 보호, 실비정산 건축설계용역요율의 실시, 보수요율의 현실화 등이 따라야 한다. 특히, 공정거래라는 명분으로 가격입찰을 시행하는 폐단과 한푼의 작업비용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설계아이디어를 빼내어가는 문제, 수많은 기획설계 및 기본구상 등 설계기초작업을 한뒤에 잘해야 운 좋게 설계를 맡아야 하는 불이익과 비효율, 설계에 투입되는 인력의 수준이 다르고 소비하는 시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책정된 보수요율과 품질을 도외시한 일률적인 보수요율체계 등은 고품질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공사감리에 대한 산발적 업무분산, 설계감리와 공사감리 그리고 감독에 대한 역할과 업무분담의 불명확성, 부실공사에 대한 처방이 그 원인처방은 하지 못하고 공사감리의 강화와 공사감리의 처벌강화로 운영되고 있는 점, 감리강화가 설계인력과 건설시공현장의 기능인력이 감리로 이동하는 바람에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도리어 품질이 뒤떨어지면서 고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모든 업무가 고유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그 역할에 따라 권한과 책임 그리고 의무가 주어지며 충실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주문생산의 특성상 수요공급의 심한 기복은 설계사무소의 연합 등 인력의 공유제로 해결해야 하며 지나친 법적규제와 감리강화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주적,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하며 빠른 시일안에 시행되어야 할 보험보증제의 도입 그 과도적인 단계로서 공제제도의 시행, 기획의 강화, 업무에 대한 권한과 품질에 대

한 책임부여, 고유업무에 전담할 수 있는 풍토와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건축사는 기존의 업무이외에도 기획업무, 컨설팅, 개발투자 등 신규업역을 확대해야 하며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국민에게 전문가로서 더욱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6. 결론

급변하는 내외환경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을 위한 여건을 갖추고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건축분야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현재 수많은 내외적 도전에 많은 시련을 겪고 있다. 설계의 경쟁력확보는 공통적으로 가지는 기업경영원리와 같다. 디자인 및 기술향상을 통한 품질경쟁과 가격경쟁, 그리고 인력의 양성과 훈련, 마케팅 전략, 홍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모두가 그리고 모든분야에서 세계에서 이길 수 있고 이를 잘 조직화 할 수 있을 때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경쟁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개선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겠지만 스스로 해야 할 일이고 잘못된 것이라면 거듭나는 아픔이 있더라도 과감히 체질개선과 구조개편을 해야 한다. 결국 문제의 근원은 남에게 있다기 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남을 탓하거나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자기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주제발표 2

건축설계의 전문화

Specialization of Architectural Designs

박경립 / 강원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1. 머리말

몇 년동안 우리는 귀가 아프도록 건축문화 창달의 주역인 건축사들의 자질 향상과 건축사협회의 의식개혁과 체질개선에 관하여 들어 왔다. 이미 그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여론 환기를 위한 토론의 장도 여러 차례 마련되었다. 어쩌면 새삼스레 이같은 논의를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제는 정말로 실천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이다.

그간의 논의되었던 방안들은 여러 건축사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내놓은 방안이므로 현실적으로 매우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한 좋은 방안들은 아직도 대부분 구호에 그치고 있으며 후속 조치들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건축사들과 대한건축사협회의 노력 부족에도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못지 않게 도움을 아끼지 않아야 할 관련 단체 및 업계의 이해부족과 집단이거주의적 발상과 행동 때문이기도 하다.

몇달전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건설업의 경쟁력 제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교통부가 입법 추진 중인 건설산업기본법(안)에 대하여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안으로는 건설에 관련된 분야의 문제점을 정비하고 밖으로는 밀려오는 개방화 시대의 경제압력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건축설계 같이 중요한 분야를 건설의 범주속에 넣어 해결하려는 발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미 건축설계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법안이 추진된 데 대한 오류가 지적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도 건축문화의 중요성과 독자성을 논하며 우리의 건축문화를 지키려는 많은 글들이 쓰여졌다. 이는 건축문화의 창달의 주역인 건축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도 건축설계분야의 전문성과 사회문화적 중요성을 감안하지 못한채 여러가지 형태로 건축설계의 향방이 논의되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다.

사회는 급격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삶의 양태도 바뀔 것이고 사람에게 삶의 그릇을 마련해 주는 건축가의 의식과 건축관도 바뀔 것이다. 그리고 변화, 발전하는 과학기술도 여러 형태로 건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건축의 영역성과 전문성에 대한 정의도 바뀌리라고 본다. 문제는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데 있는 것이다.

2. 사회 변화에 표류하는 건축

근 몇 년 동안의 국내외 정세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사고와 행동 반경을 한반도에 국한시킬 수 없게 하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환경의 재편은 여러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에 못지 않게 과학기술의 발전은 광범위하게 사회변동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과학·기술계의 지적, 사회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가운데 경제성장을 지상 목표로 추구하던 정부에 의해 과학기술을 통한 "최단시일 내에 최고의 경제효과"를 얻으려는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이같은 경향은 정부의 정책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전문가에게도 이같은 시각을 깊게 자리잡게 하였다. 이같은 도구적, 경제 중심적 과학기술관은 자연스럽게 건축 분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짧은 공기, 저렴한 생산비용은 우리의 목표이자 자랑이 되었다.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우리는 이같은 자랑의 부정적인 면들을 확인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나아진 우리의 국력에 걸맞는 건축환경 창조를 시도하지만 오랫동안 몸에 배인 습성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숨조차 쉴 수 없게 몰아치는 국제 환경의 압력이다. 더 이상 우리들끼리 오붓하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시기는 산업혁명 때 못지않게 급격한 사회변동의 시기로 정의되고 있다. 탈산업사회, 정보화사회 등으로 정의되기도 하는 이 시기는 우리가 계속 과거와 같은 발전 속도를 유지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담보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회를 이해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퇴보의 나락으로 떨어질 지도 모른다. 미국 MIT의 미디어연구소 설립자이며 소장인 네그로폰테 교수는 『디지털이다』(Being Digital)라는 베스트셀러에서 정보화 사회에서는 탈중심화(Decentralizing), 지구촌화(Globalizing), 조화력(Harmonizing), 권한부여(Empowering)의 네가지 특성이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개진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생활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건축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같은 논의는 우리 현실 생활하고는 관계없는 고준담론으로 치부되었으나 근자에 들어 이같은 변화가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건축사에 합격한 사람 대부분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도면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몇몇의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 10년 이전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대부분은 컴퓨터 사용에 익숙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설계사무실에서 제도판은 이미 사라졌고 컴퓨터가 자리를 차지한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건축사와, 건축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나 컴퓨터 사용에 익숙한 건축사보가 함께 설계에 임하고 있다. 이들간의 건축적 대화의 단절은 컴퓨터사용 유무보다 훨씬 심각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설계를 만들어 나가는 도구에 의해 건축언어가 간섭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도구사용의 미숙은 디자인의 어휘를 한정시키며 자유로운 창작의지를 방해하고 있다. 설계공모와 같은 경우 일부 건축가에 의해 Computer Aided Design이 이루어지기도 하나 대부분 컴퓨터는 Computer Aided Drafting 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빠른 변환으로 여러가지 대안 설계를 할 수 있는 컴퓨터의 장점이 일부만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3차원의 CAD작업을 활성화시켜 대안 마련의 시간을 줄이면 도구에 의한 건축설계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본다.

지금까지 건축은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의 토대인 개인의 사적 소유와 이윤 동기가 감춰진 채 예술, 문화, 사회적 공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건축은 대부분 부동산의 가치이거나 건설상품으로서 다루어져 왔다. 이같은 이중적인 태도는 건축가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건축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끼쳐 건축의 사회적 가치에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우리가 살고있는 자본주의 자유경쟁 사회체제에서는 모든 것이 상업적 가치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건축의 상품성만을 강조하는 상업성만이 만연될 때 우리

는 우리의 삶을 책임질 그릇이자 원동력인 건축문화를 잃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변화하는 세상에 개인적 가치와 공공적 가치를 보전하여 줄 상업성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보다 균형잡힌 접근이 요구되는 바이다.

우리는 건축이 건축가 혼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이야기 할 때 우리는 주로 건축가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에 대해서만 국한하여 이야기할 때가 많다. 자신의 이익추구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라는 공익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좋은 클라이언트와, 법제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건축가의 설계의도가 잘 반영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전문성이 높은 관계공무원은 좋은건축, 환경창조의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즉, 건축가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건축가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갖는 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건축환경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는 환경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서 비롯될 수 있다고 한다. 환경의 본질에 대한 분석은 여러가지로 정의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주변환경은 영역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로 구성된다고 한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의 사회적 체제 내에서 활동한다고 한다. 사회적 체제는 직·간접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규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상호 작용하는 일단의 사람들로 구성된다. 어떤 개인의 환경은 많은 사회적 체제로 구성되기도 한다. 각각의 체제 내에는 구성원들의 역할과 행동에 관한 공동의 기대치가 있으며, 개인의 역할은 사회적 체제의 규범을 반영한다. 문제는 사회가 건축사라는 전문성을 지닌 전문인에게 무엇을 기대하여 왔고 건축사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여 왔느냐 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동안 나타난 부실건축들 때문에 건축사들의 신뢰도가 많이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건축사들 또한 그렇게 만든 사회의 책임은 논하지 않고 마지막 결과만을 건축사들에게 묻는 지금의 현실에 대하여 억울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건축사들이 이루어 놓은 우리땅의 건축문화에 대하여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업적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여야 한다.

좋은 문화는 문화창출자가 좋은 사회적 대우를 받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건축가들에게도 열심히 작업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필요하다. 건축설계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보상이 되기도 하지만 재정적 보상이 더욱 강한 동기로 작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건축가의 설계의지를 좌절시킬 뿐만 아니라 재정적 보상은 커녕 손실을 초래케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더욱이 시간적 제약은 건축가들의 의욕을 꺾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좋은 건축환경을 창조하려는 건축가들의 의지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며 이럴 경우 상업적 가치로서만 건축 설계를 수행하려는 경향에 경도 되기 쉽다. 한편 건축가도 설계에 관여하는

여러 관련분야의 참여자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을 주며 건축목적에 부합하는 일관성 있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은 합리적인 합의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침해당하는 건축의 전문성과 영역성

건축이 사회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 건축인들이 겪고 있는 이 변화는 분명히 사회변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 것이다. 전문성과 전문가의 정의도 바뀌고 있으며 전문가가 되는 과정도 바뀌고 있고 전문성을 발휘하는 환경 또한 바뀌고 있다.

모든 건축이 건축가에 의해서 설계되어지는 않는다. 아직도 많은 건축들이 건축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지어지고 있다. 우리는 버나드 루돌프스키의 <건축가없는 건축>으로부터 건축가의 손을 빌리지 않은 건축의 아름다움이 세계의 곳곳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확인 한 바 있다. 한편, 고도로 훈련받은 건축가에 의해 지어지는 건축들이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만을 부여하여 지어진 건축들이 있다. 부실공사나 행정제재를 받는 건축들 대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속칭 허가방이라고 불리어지는 사무실에 의해 가장 기본적인 설계도서만이 작성되며 시공책임자가 없이 시공됨으로써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정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이같은 행위자체는 우리의 시대적 산물로서 무조건 경멸 당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많은 건축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설계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주변환경은 보다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표준시방서와 상세도를 마련 보급함으로써 최소한의 허가행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으리라 본다. 더불어 이 기회에 저렴한 가격으로 허가만을 내주는 행위자체를 전문성을 지닌 행위로 간주할 수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아직도 도시의 저소득층에게는 지금의 설계비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전문성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판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증은 건축 전반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어진 건축에 대한 건전한 비평이나 거주후 평가 등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설계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 양적 생산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회적으로 전혀 득이되지 않는 건축을 양산한 사람들이 오히려 실적이 많다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모든 것이 물량의 개념으로만 따져지고 있는 것이다.

그간, 유일하게 전문성을 보장해 왔던 것이 건축사자격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국가가 보장했던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는데 있다. 지난 30년동안 국가는 건축사들의 고유영역

을 인정하고 그들의 집합체인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왔다.

이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로써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바꾸어야 할 근본적인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삼풍사고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대형사고가 난 것에 대하여 건축사들도 책임은 통감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전문성을 갖는 고유업무를 다른 기관에서 관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건설회사나 타업체에서 건축사를 고용하여 설계를 할 때 좀더 효율적인 건설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새로운 법이 한때 제안되었으나, 설계는 결국 건축사가 하는 것이기에 건축사 개인의 존재이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질적향상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위의 경우 건축사의 고유업무가 보장되지 못하여 건축설계가 자율성을 잃고 질적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는 더욱 클 것이다. 이제 이런 소모적인 논의는 그만 할 때가 되었다. 정부는 이런 사태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는 바탕위에서 건축설계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러한 사실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한편 전통적으로 건축에 속해 있던 분야가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며 독립해 나가는 것도 있다. 그 중 가장 큰 분야 중의 하나가 실내디자인 분야이다. 지난 세기 현대 건축의 1, 2 세대의 유명한 건축가중 가구를 설계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었다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몇몇의 건축가를 제외하고 건축설계사가 가구까지 디자인을 하려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어느 사이에 실내디자인너는 커다란 시장을 형성하고 그들 영역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제는 실내디자인을 할 때 자연스럽게 건축가 대신 실내디자인너를 찾게 되었다. 어찌 보면 건축가의 영역 상실로 보이지만 보다 전문화된 건축의 분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한편, 도시설계의 문제도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점점 거대해지는 건축구조물들이 도시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다. 드디어 도시 내의 건축물들이 도시설계라는 이름으로 조정되기 시작하였으며 얼마 전에는 법제화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 도시와 건축의 조화는 당연히 추구되어야 하나 법의 제정은 보다 신중하여야 한다. 도시설계에 관한 법은 건축이 그들의 정당한 논리와 질적 향상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도와줄 뿐이지, 각 개체 건축물의 다양한 개성 표출을 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와 같은 영역의 분화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필요로 할뿐만 아니라 영역사이의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의 육성과 세밀한 연구를 통한 법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다 내주고 나면 건축가에게 남는 일은 무엇인가? 그러나 건축가에게는 조형의 탐구를 통한 공간의 창조라는 큰 역할이 있다. 즉, 삶의 그릇이라는 골격을 만들어 주는 가장 중요한 일이 남게 되는 것이다. 설계란 건축가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축적된 모든 아이

디어, 미의식, 기술적 축적들이 건축주라는 구체적인 매개인을 통하여 사회속으로 구체적인 형태를 갖고 표출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로는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그릇이 문제이다. 이는 아직도 산업사회의 구조 속에 길들여져 지금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탈 산업사회의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듯 세계의 급격하는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변화하는 생활에 맞추어 조절될 수 있는 공간의 창출이라는 Software의 High Game에는 인고의 세월을 거쳐 고도의 훈련받은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즉, 역사, 문화,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축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건축생산과정을 훈련받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축가의 시대를 바라볼 줄 아는 안목과 그에 따른 인식의 전환과 건축적 대처 노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한때 건축가들은 새롭게 요구되는 산업시설물 설계를 외면한 채 그들의 영역을 전래의 건축에 묶어 둔 적이 있었다. 사회의 새로운 요구를 한편으로는 이해하면서도 건축가의 사회적 신분저하와 품위손상을 우려하여 새로운 산업구조물에 등을 돌렸던 것이다. 20세기초에 들어 건축가들이 공장설계를 건축적 과제로 인식하여 다시 출발할 때까지 오랫동안 이들의 설계는 엔지니어와 조경가의 몫이었다. 산업혁명 이후 건축의 전환점으로 각광받았던 1851년 세계박람회장이었던 수정궁은 조경가의 작품이었고, 유명한 파리의 에펠탑 설계자는 토목기술자였던 구스타프 에펠 이었다.

전문성은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의 몫인 것이다. 주어진 자격에 안주하며 끊임 없이 노력하지 않는 전문가는 당연히 자리를 잃게 마련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좀더 세밀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로 진입한다고 한다.

건축사들도 국가에서 준 자격증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전문성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사자격 취득 후에도 또다른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는 업무도 있다. 고건축보수설계가 바로 그것이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고건축설계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현실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유일한 분야이다. 마치 이는 전문의 제도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현대 건축설계 중에도 고도의 전문성을 지녀야 하는 분야가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제도를 현대 건축설계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을 것이다. 전문성이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의사의 전문의 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사시험 합격 후 인턴과정을 통하여 전공목을 두루 섭렵하게 되고 그 이후 한 과를 선택하여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같은 수련과정을 거친 후에야 특정분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의술이 점점 발달하여 한 과 내에서도 다시 여러 분야로 세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Professional이란 단어의 의미에 가장 가깝게 분류되고 있지만 현실은 그들에게 전문분야만을 취급케 하지는 않고 있어 의사들도 그들 진료환경 개선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예약이 꼭 차 진료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의사가 우리나라에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는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의 희귀성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물론 이러한 것은 Professional Service를 하는 유사한 집단으로서 건축과 비교를 할 수는 있으나 서로의 환경 설정이 너무나 달라 곧바로 의료제도와 같은 방법을 건축에 도입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오랜 세월의 고된 훈련 끝에 취득한 건축사 자격위에 또다른 자격 시험을 부가할 경우 또다른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리라 본다. 건축가란 어떤 종별의 건축이건 간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공간형성과 그를 만드는 조형체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훈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정한 건축 종별로 창작의 범위를 좁혀놓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도 구체적으로 건축 종별을 구별해 전문면허를 발급하지는 않고 있다.

전문성 제고의 문제를 자격으로만 묶으려는 시도는 될수록 지양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오히려, 건축사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관심이 있고 많이 수행하는 건축별로 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과별로 관련 정보를 수집, 공동 활용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여가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고 본다.

미국에서는 설계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주거설계위원회, 위락시설설계위원회, 병원설계위원회 등으로 구성하여 각 분야에서의 정보교환, 제도개선, 세미나를 통해 설계발전에 기여하며 매년 활동 성과물을 제출한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각 위원의 희망과 경력 등을 참조하여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한다. 각종 연구는 위원회 위원들이 각자 시간을 할애하여 직접 봉사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외부용역을 의뢰한다.

한편, 각 개인의 건축가들의 질을 높이는 노력 못지 않게 건축가들의 집단인 대한건축사협회 자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요즈음 들어 대한건축사협회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한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진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설계사무소나 개인의 건축사들이 할 수 없는 연구사업을 협회가 시행하여 회원들의 설계활동이 수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필요성만 절감할 뿐 아직도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 좀더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되는 바이다.

4. 피라미드 구조에서 Network체제로 변환을

앞으로의 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중시되고 상품화되는 정보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체제 안에서의 '정보의 독점과 공유'라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한다. 정보사회라고 해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모든 정보에 똑같이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컴퓨터와 같은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소규모 설계사무실들도 설계도면 생산이 용이해지고 정보기기 사용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기기와 관련 프로그램들을 위한 비용지불 능력의 차이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의 혜택이 경제적, 문화적 기득권 집단에게 편중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사무소의 규모와 재력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겠으나 국력 차이에 따른 국가간의 차이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과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정보정의(Information Justice)의 기본원칙은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에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의 보편적 접근이라는 문제는 상업화와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보사회에서의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지어진다. 진정한 건축적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본의 규모에 따라 건축설계시장이 형성되지 않게 협회가 중심이 되어 Network을 구성하고 공동사용 하므로써, 정보사회속에서 바람직한 건축설계시장을 정착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처음부터 끝까지 체제를 구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력을 다 갖추어야 탄탄한 회사가 된다는 신화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 모두들 군살빼기를 하고 다가오는 정보화사회의 빠른 전환성에 적응하려고 하는 시대로 돌입하고 있는 것이다. 피라미드 구조는 여러 면에서 안정성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변화에 대처해야 하는 적응성은 뒤떨어진다. 정보화사회에서는 피라미드 구조가 Network의 체제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연구하는 대부분 학자들의 분석이다.

Network 체제로의 전환과 Software의 고부가 가치 사회에 적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축조직 또한 Network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Network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도화된 전문성의 확보이다.

WTO에 의하면 설계의 단계는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우리는 이 3단계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일예로, 현재 음성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하청의 개념이 아니라 협력업체로서의 정당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상세도 작성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들을 파트너로서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WTO 내용에서 다른 항목으로 구분지어 나타나는 것은 각 영역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는 비록 우리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여도 세계협약의 보편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실에 있어 선진국들은 축적된 경험의 귀중성을 인식하고 일정 분야를 공략함으로써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 건축의 경쟁력 향상은 설계의 품질확보, 적절한 서비스비용, 철저한 애프터서비스를 통하여 이룰 수밖에 없다. 설계의 품질확보는 건축가의 전문성을 보다 높임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여타 관련분야와의 조화있는 대응의 협력으로 더욱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협력시스템도 구축하여야 한다. 모든 분야를 다 갖추어 효율을 기한 때도 있었으나 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이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하청의 의미로 기피되었던 협력업체들을 파트너 내지는 어소시에이트와 같은 이름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5. 맺음말

국내 건축경기의 침체와 외국기업들의 국내진출은 건축설계시장을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어렵게 하고 있다. 변화에 대처하려는 여러가지 노력들이 법과 제도의 개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여파가 어떻게 이어질지 몰라 많은 건축가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실은,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할 과제들인데 본인들만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건축설계의 품질을 클라이언트가 설계도면만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설계 사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대부분 건축주는 과장된 투시도나 조그만 축소 스케일로 만들어진 모델에 현혹되게 되며 실질적인 설계 내용이야 어떻든 컴퓨터로 잘 그려진 도면에 만족하게 된다. 갈고 닦은 고도의 훈련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좋은 설계를 위하여 투여된 시간이 뺨 노력들은 도면 속에 용해되어 잘 보이지 않게 마련이다. 이같은 설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현실 세계 속에서 평가받지 못한다면 이같은 논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정보화사회에 들어설수록 개인의 역량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혹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작은 조직으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본인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조직 강화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합리적인 제반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회원의 손과 발이 될 뿐 아니라 두뇌역할을 충실히 하는 정보Network구축활용의 중추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와 아울러 과감한 After Service 개념의 도입과 평생학습사회에 걸맞은 평생교육제도를 통하여 건축사의 전문성을 끊임없이 유지시켜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건축설계분야의 전문성은 확보되어야 하지만 건축이 실현되는 과정에 연관되는 많은 부분들이 존재하는 만큼 인접 관련분야의 영역성을 존중하며 상호협력에 임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WTO를 비롯한 국제 관련법을 철저히 조사 연구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그간 건축문화의 중요성을 건축인들끼리만 논의하였지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시키지는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논의를 계기로 건축문화창출의 주역인 설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